

書評: 柳存仁教授의 道教史와 明清小說 研究

『和風堂文集』·『和風堂新文集』의 紹介

崔 溶 澈*

『和風堂文集』(上中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1

『和風堂新文集』(上下)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97

柳存仁 교수는 1917년 北京에서 태어나 北京大學을 졸업하고 英國 런던大學에서 철학박사와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오스트레일리아에 정착한 화교학자다. 그는 濠洲 國立大學의 강좌교수로 있으면서 亞細亞研究學院의 원장을 지냈고 濠洲 人文科學院의 회원(院士)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황실아시아학회의 회원을 지내기도 했으며, 현재는 호주 국립대학의 명예교수로 있으면서 쉬지 않고 꾸준히 국제적인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원로학자다.

그의 연구영역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道教史 연구와 明清小說 연구 및 中國古籍에 대한 考證 등의 분야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그의 명성을 익히 듣게 된 것은 『倫敦所見中國小說書目提要』를 편찬한 인물로서였지만, 실제로 만난 것은 1992년 중국 揚州에서 열린 國際紅樓夢 학술대회에서 였다. 그의 첫인상은 80高齡의 나이에 도 불구하고 너무나 깨끗하고 깔끔한 동안의 얼굴에 항상 미소를 띠고, 아담한 몸체를 조용히 움직이며 소근소근 말한다는 것이었다. 1994년 臺灣 中央大學에서 다시 그를 만났을 때 필자는 따로 그를 찾아가 그의 노익장의 비결을 물어본 적이 있다. 그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하여 별도의 양생술은 가

* 高麗大 中文科 副教授.

지고 있지 않지만 매일 저녁 잠들기 직전에 바른 자세로 의자에 앉아 단전호흡을 한다는 정도였다. 그 방법만으로 그는 그 나이에도 거의 매일 이어지는 밤 12시까지의 원고집필에도 별로 피로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 그제서야 필자는 그가 명청소설의 연구뿐만 아니라 도교사의 연구에 세계적인 업적을 낸 대학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아무래도 그의 양생술은 유래가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록 중국인이지만 50년대 말부터 서양의 언어로 중국 文史哲에 관한 연구논문을 다수 발표하여 이미 서구의 중국학 연구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다. 그의 영문저술로 이름있는 것으로는 우선 1962년 독일에서 간행한 『佛道教影響中國小說考』(Liu Ts'un-yan, *Buddhist and Taoist Influences on Chinese Novels* Vol.I. Otto Harrassowitz, Wiesbaden, 1962)와 1967년에 홍콩에서 간행한 『倫敦所見中國小說書目提要』(*Chinese Popular Fiction in Two Lodon Libraries*)』(龍門書店, 1967)이라고 할 수 있다.(이 책은 실제로 1962년에 호주 캔버러에서 서문을 썼으며 臺灣 鳳凰出版社의 것은 1974년판임) 전자는 그의 훗날 전공분야를 한문에 알 수 있게 해주는데, 바로 불교 및 도교가 소설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고찰한 책으로서, 주로 『西遊記』·『封神演義』·『武王伐紂平話』·『列國志傳』 등의 작품을 대상으로 도교적 배경과 불교적 영향을 살펴보고 삼교합일사상에 대한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소설연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공구서의 일종으로서 일찍이 孫楷第가 펴낸 『日本東京所見中國小說書目』(1932) 및 『中國通俗小說書目』(1933)과 더불어 널리 활용된 소설서목이었다. 영문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영국 런던에 있는 두 군데 도서관(영국박물관과 황실아시아학회)에 소장된 중국소설을 조사한 목록이다.

한편 그의 영문논문들을 모아서 간행한 것으로는 네덜란드의 라이덴에서 간행한 『和風堂論文選集』(*Selected Papers from the Hall of Harmonious Wind*)』(E.J. Brill, Leiden, 1976)과 『和風堂散策新集』(*New Excursions from the Hall of Harmonious Wind*)』(E.J. Brill, Leiden, 1984)이 있는데 역시 서양학자들

에게는 영향력이 큰 논문집이다. 여기서 그의 당호가 和風堂이라 함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에게 풍기는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하겠다. 이와 별도로 『和風堂讀書記』(上下)가 역시 홍콩의 용문서국에서 1977년 간행된 바도 있다 하는데 필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그의 中文 논문집이 간행된 것은 이러한 그의 학문적 역정에 비하면 극히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역시 화풍당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동안 발표된 그의 대표적 논문을 수록하였는데 중국에서 간행된 『和風堂文集』(上中下, 上海古籍出版社, 1991)과 대만에서 나온 『和風堂新文集』(上下, 新文豐出版公司, 1997)의 두 종류가 있다. 前者에는 1987년 이전에 쓰여진 논문 48편이 수록되었고 後者에는 그 후 10년간의 논문 27편이 실리게 되었다. 여기 두 종의 문집에 수록된 총 75편의 논문은 柳存仁의 학문적 역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결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 두 문집의 논문을 소개함으로써 그의 학문적 경향과 성과를 가늠해 보고자 한다.

1991년 上海에서 刊行된 『和風堂文集』에는 모두 48편의 논문이 실려 있는데 도교사 관련연구와 소설사 관련연구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권두에 실린 『墨經』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해석을 달고 있는 「墨經箋疑」(1964)는 2백 쪽이 넘는 분량의 장편으로서 상하로 나누어 실었고, 『道藏』에 들어 있는 『노자』의 전을 모두 모아 분석한 「道藏本三聖注道德經會箋」(1973)은 250쪽의 장편 저술로서 「道藏本三聖注道德經之得失」(1969)의 후속으로 완성한 글이다. 이어서 拜火摩尼敎의 문제, 蒙古人の漢化문제, 張天師(張道陵)의 처와 딸들, 明代의 儒學과 道敎, 王陽明과 道敎의 관계 등에 대한 논문이 실려 있다. 유존인의 중심연구 테마인 도교사와 소설사의 연구는 사실상 하나로 연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설사에 관한 글에서도 역시 도교와 관련이 많은 부분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사 연구는 특히 『封神演義』와 『西遊記』 등에 관련된 것이 많다. 「毘沙門天王父子與中國小說之關係」(1958·1962)에서

는 『봉신연의』 속에 나오는 李靖과 그의 세 아들 金吒·木吒·哪吒의 유래에 대해 고찰하면서 소설 속에서 주나라의 건국을 돕고 있는 이정이 사실은 당대의 명장 李靖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천왕의 하나로서 북방을 주재하고 夜叉를 거느리고 다니는 毘沙門天王에게 빗대어 민간에서 거의 신으로 추앙되었으며 이미 당대 肅宗 때부터 도교의 萬神殿에 모셔져 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 「元至治本全相武王伐紂平話明刊本列國志傳卷一與封神演義之關係」(1959)와 「全眞教與小說西遊記」(1985)·「陸西星吳承恩事跡補考」(1981) 등도 모두 도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소설사 논문이다. 그는 이들 논문에서 『封神演義』의 작자가 陸西星(1520-약 1601)이라고 추정하고 이 책은 마치 『三國演義』나 『水滸傳』이 오랜 성립과정을 거쳐 마침내 나관중이나 시내암에 의해 완성된 것처럼 전해져 온 것이라고 하고 최종 완성 이전에는 일찍이 元나라 至治연간에 간행된 『武王伐紂平話』와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명나라 때 余象斗와 陳眉公(陳繼儒) 등의 비평본으로 간행된 『列國志傳』과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또 胡適의 고증 이래로 『西遊記』의 작자를 吳承恩으로만 확정지었던 것을 재검토하면서 청대 학자(毛奇齡 등)의 설을 들어 원대 全眞教의 주요인물인 丘處機(長春真人; 1148~1227)와의 관련설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다. 그는 『西遊記』의 경우도 다른 소설과 마찬가지로 일찍이 화본인 『大唐三藏取經詩話』가 있었고, 원말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중국어 교본인 『朴通事諺解』나 『永樂大典』에 일부 초기 西遊故事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고 이어서 간본계통인 陽致和(陽本)의 『新鏤三藏出身全傳』와 朱鼎臣(朱本)의 『鼎鏤全相唐三藏西遊記』와 같은 작품이 100회본 『西遊記』에 앞서서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明清通俗小說의 版本을 논함」이란 글은 그의 『런던소견중국소설서목제요』의 서두에 「소설과 판본」이란 글을 중문으로 옮긴 것인데, 중국소설사의 연구시기구분과 판본의 일반적 지식, 통속소설의 판본, 삽도와 설명문, 판본사용의 혼란상태, 서점(書鋪)의 분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상당

히 구체적으로 정리한 장편의 논문이다. 중국소설을 연구하는 초보자들에게 판본에 관한 상식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臺北에서 『和風堂新文集』에는 모두 27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내용별로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하나는 經典과 諸子書 및 思想史 관련논문이며, 둘째는 道教와 道教史의 考證에 관한 논문이고, 세번째는 中國小說史 관련논문이며 마지막으로 고전문학중에서 賦에 대한 몇 편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처럼 단순한 분류를 통해서도 그의 관심이 대체로 어디에 있는지는 쉽게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두에 있는 「공자의 가르침(孔子的遺教)」, 「낭송하던 논어에 대하여(關於朗誦論語)」, 「동중서와 춘추(董仲舒與春秋)」 등의 경전관련 글이나 권말의 「양도부와 이경부를 읽고나서(讀兩都, 二京賦簡端記)」 등의 일부 논문을 제외하면 그 주류는 역시 도교문제와 소설문제로 압축된다고 할 수 있다.

「朗誦하던 論語에 대하여」의 경우는 그가 싱가포르 東亞哲學研究所의 초청으로 『四書』 전체를 낭송하여 비디오 테이프를 제작했던 작업의 부산품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전통유가적 소양에 대한 그의 심도있는 이해를 엿볼 수 있다.

道教研究의 서론적인 「도교란 무엇인가(道教是什麼)」를 비롯하여 도교 경전의 원류와 성격 및 내용분류 및 그 함의까지 언급하고 있는 「도장의 성격(道藏之性質)」, 사서에 수록된 도교관련 기록과 도교문헌 속의 내용을 비교 분석한 「사서와 도교문헌(史籍與道籍)」, 三國에서 쑤나라 때까지 출현한 것으로 알려진 王魯連·魏華存·韓西華·王抱臺·孫寒華·鮑姑 등 여섯명의 여선과 부록으로 麻姑를 함께 다루고 있는 「삼국·진대의 여신선(三國晉時之仙女眞)」, 주자가 도교경전인 『참동계』에 주석을 달면서 한대 주역을 이해하고자 했던 면을 고찰하고 있는 「주자와 참동계(朱熹與參同契)」, 일본학자 蜂屋邦夫의 도교연구 저서에 서평을 쓰면서 아울러 奎眞教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蜂屋邦夫의 『금대 도교의 연구』를

읽고(讀蜂屋邦夫『金代道教の研究』), 현대 도교연구의 역사를 정리한 「민국 이후의 도교사 연구(民國以來之道教史研究)」 등이 모두 중요한 도교 관련 논문들이다. 이밖에도 돈황에서 출토된 문헌을 다룬 몇 편의 논문이 있는데, 武則天의 출신배경을 돈황문헌인 『大雲經神皇受記義疏』에서 찾자 한 「武則天 선조의 내력에 관한 추측(武則天先世來歷之推測)」과 돈황에서 발견된 老子 『道德經』에서 파생하여 도교교본의 하나가 된 『想爾』와 그 주석본인 『想爾注』에 대해 고찰하면서 도교사와의 관계를 다룬 「『상이주』와 도교(想爾注與道教)」, 파리에 소장중인 돈황문헌 『三洞奉道科誠儀範』에 기록된 “金明七眞”의 말에서 칠진이 어느 신을 지칭하는지를 고찰한 논문 「『三洞奉道科誠儀範』 제5권중의 金明七眞에 대한 추측(『三洞奉道科誠儀範』卷第五中金明七眞一詞之推測)」 등이 그것이다.

「『中國小說에 대한 佛敎와 道敎의 影響고찰』에 관하여」는 독일에서 영문으로 출판한 동일서명의 연구서에 대한 편찬경위와 고증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紅樓夢』의 舊本」은 1992년 揚州에서 열린 “홍루몽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장편의 논문으로서 과거 수십 년간 나온 索隱派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하고 있는 글이다. 청대 嘉慶연간의 竹枝詞에는 “얘기 속에 홍루몽을 말하지 않으면 시서에 능통한들 한갓 쓸데없어라(開談不說紅樓夢, 讀盡詩書是枉然)”는 말이 있다. 이미 당시부터 이 작품은 색은파와 고증파의 연구대상이 되었다. 초기 필자본인 甲戌本 『脂硯齋重評石頭記』의 眉批에 “雪芹舊有『風月寶鑑』之書”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에 대해 논자들은 조설근이 『석두기』를 완성하기 이전에 『풍월보감』이란 초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과 조설근 가문의 또 다른 가족의 한사람이 『풍월보감』을 지었다는 주장 그리고 별도의 작가에 의한 창작을 기초하여 조설근이 『석두기』로 발전시켰다는 다양한 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 색은파의 주장에 대해 비교적 공정한 입장에서 세밀한 분석을 가하고 있는 것이 이 논문이다. 최근 일본 東京大學의 上田望 교수와 戶倉英美 교수가 이 글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

으로 알려졌다. 사실은 필자도 揚州회의에서 柳存仁 교수를 처음 만났고 그 논문을 처음 대하였던 관계로 이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三國志』와 『三國志演義』중의 역사적 성분은 『삼국연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연구테마가 되고 있는 역사적 진실과 소설적 허구의 부분을 천착한 글이고 『西遊記』의 簡本인 陽本과 朱本の 선후문제 및 繁本과의 선후문제』에서는 『서유기』의 형성과정과 판본의 계통연구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陽本과 朱本の 문제와 더불어 繁本과의 관계를 다시 천착하여 簡本이 결코 繁本の 축약본은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도 청대 협의소설 『龍圖耳錄』(즉 『三俠五義』)의 필사본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 있어 이 분야의 연구자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기할 사항은 柳存仁 선생이 학자일 뿐만 아니라 작가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그는 이미 50년대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청말의 庚子年(1900)과 辛亥年(1911)의 두 글자를 취하여 『庚辛』이란 제목의 작품을 홍콩에서 낸 바 있고(제1장에서 9장까지), 1968년에 다시 이를 확대하여 『靑春』(전30장)이란 제목으로 출간한 바 있다. 그는 최근(1996) 이 작품을 『大都』란 제목으로 바꿔 天津의 百花文藝出版社에서 다시 간행하였는데 6백 쪽이 넘는 장편소설로서 청말 이후 1925년경까지 약 30년간 北京의 일부 전통가문이 급격하게 변모하는 양상을 그리면서 그 와중에서 고통받는 부녀자와 가련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柳存仁 교수는 광의의 文化史家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대만판의 서두에 실린 재미 화교학자 余英時 교수의 序文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말이다. 그가 특히 관심을 기울인 대목은 小說과 道敎였으며 이 두 가지의 관문을 통하여 明清시대의 民間文化를 구체적으로 파헤치고자 했던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그의 책을 입수하고 훑어본 다음 뒷면의 여백에 다음과 같이 메모를 남긴 바 있다.

“평생을 하나의 일에 종사하는 것은 큰 고마움이지만 그 속에서도 부단히 새로 시작할 수 있음은 신선한 자극이다.”

“늘 새로운 일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가슴 설레이며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큰 기쁨이다.”

이는 평소의 생각을 스스로에게 한 말이지만 또한 柳存仁 교수에게서 받은 강렬한 느낌이기도 하다.

△ 『和風堂文集』과 『和風堂新文集』의 收錄論文 目錄

「和風堂文集」(上中下三冊)

墨經箋疑(上)

論道藏本顧欽注老子之性質

道藏本三聖注道德經之得失

元代蒙古人漢化問題及其漢化之程度

張天師의 妻女們

許遜與蘭公

張君房與宋代道書

明儒與道教

王陽明與佛道二教

閱道藏記凡例

研究明代道教思想中日文書目舉要

毘沙門天王父子與中國小說之關係

孤本與罕見本小說

論小說史上的若干問題

元至治本全相武王伐紂平話明刊本列國志傳卷一與封神演義之關係

四遊記的明刊本

陸西星吳承恩事跡補考

伍伯與花關索

墨經箋疑(下)

道藏本三聖注道德經會箋

唐代以前拜火教摩尼教在中國之遺痕

一千八百年來的道教

題免得龕藏漢天師世系贊卷

五代到南宋時的道教齋醮

張伯端與悟真篇

王陽明與道教

補明史佞幸陶仲文傳

道藏刻本之四個日期

讀宗教詞典裏的道教部分

論明清中國通俗小說之板本

小說的時代與真偽

論近人研究中國小說之得失

全真教與小說四遊記

全真教與小說四遊記

羅貫中講史小說之真偽性質

三言二拍短篇小說裏的社會性和藝術性

讀紅樓夢研究專刊第一至第八輯
 讀左景權著司馬遷與中國史學
 讀洪煥蓮著杜甫傳
 聲音與朗誦
 李白的將進酒
 國語乎 粵語乎
 讀廣東文獻書目知見錄

怎樣去尋覓研究中國舊小說的新資料
 讀楊勇著世說新語校箋
 杜甫題玄武禪師屋壁詩
 形式與欣賞
 工業社會的課程和教材
 天理圖書館藏宋本書經眼錄

「和風堂新文集」(上下二冊)

(上冊)

孔子的遺教

董仲舒與『春秋』

清末民初的『黃龍報』

道教是甚麼

『道藏』之性質

『三洞奉道科誠儀範』卷第-P2337中的金明七真一詞之推測

史籍與道籍

關於『陶真人內丹賦』

關於朗誦『論語』

武則天先世來源之推測

一部九十年前香港出版的英漢辭典

道教前史二章

『想爾注』與道教

三國晉時之女仙真

徐神翁與林靈素

(下冊)

朱熹與『參同契』

民國以來之道教史研究

關於『道佛教影響中國小說考』

『西遊記』簡本陽·朱二本之先後及簡繁本之先後

『紅樓夢』之舊本

說虛實

論李退溪非哲理詩之境

讀蜂屋邦夫『金代道教の研究』

『三國志』與『三國志演義』中之歷史成分

『龍圖耳錄』的一個過錄的鈔本

讀『兩都·二京賦』簡端記

『增廣燕京鄉土記』序

讀『黃節詩集』